

동방 3인, MAMA 참석 "두 멤버에게 사랑한단 말 하고 파"

입력 2009. 11. 21. 21:06 · 수정 2009. 11. 21. 21:55



[OSEN=이정아 기자]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와 갈등을 빚고 있는 동방신기 세 멤버 시아준수, 믹키유천, 영웅재중이 문제가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.

세 멤버는 21일 오후 7시 서울 잠실 실내 체육관에서 열린 2009 MAMA에 나타났다. 이들이 무대 위에 모습을 드러내자 팬들의 환호성은 극에 달했다. 동방신기는 아시아에서 빼어난 활약을 한 스타에게 수상하는 베스트 아시아 스타상을 수상했다. 세 사람은 현재의 상황이 착잡한 듯 어두운 표정이었다.

먼저 시아준수는 "오랜만이다. 이렇게 큰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큰 상까지 받게 돼 고맙다. 이 상은 멤버 한 명의 노력이 아니라 멤버 모두가 노력했기에 받을 수 있었던 것 같다.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 모두에게 감사하다"고 말했다.

믹키유천은 "오늘처럼 무대에서 노래 부르고 싶다고 생각한 것은 처음이다. 너무 감사하고 가수가 돼 좋은 멤버들을 만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같다. 아시아를 넘어 세계에서 활약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할테니 지금까지보다 더 큰 응원 부탁한다"고 밝혔다.

내내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던 영웅재중은 "많은 팬들이 직접 준 상이라고 생각하기에 더 행복하고 국내외 많은 팬 분들과 혹시나 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혹시나 보고 있을 두 친구(유노윤호, 최강창민)에게 꼭 사랑한다는 말 하고 싶다"고 전했다.

SM엔터테인먼트는 시상식 전 불참을 선언했고 독자 활동이 가능하게 된 동방 세 멤버는 처음으로 함께 독자 활동에 나섰다.

happy@osen.co.kr

<사진>민경훈 기자 rumi@osen.co.kr

온라인으로 받아보는 스포츠 신문, 디지털 무가지 OSEN Fun&Fun, 매일 2판 발행  신문보기

[Copyright © 한국 최고의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문 미디어 OSEN(www.osen.co.kr) 제보및 보도자료 osenstar@osen.co.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]
 OSEN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